

“모두를 위한 전동화” 토요타 신차 한국 상륙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 등 8종 출시 AI 콜센터·리셉션 키오스크 등 고객 서비스도 강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8종의 신차로 전동화 전환이 진행되는 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한다.

27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따르면 최근 ‘모두를 위한 전동화’ 전략과 함께 올해 사업 전략과 신차 출시계획을 공개했다.

토요타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에너지 상황과 고객의 니즈(요구)를 고려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 전기차(BEV)를 모두 포함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동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토요타 코리아도 이런 전략에 맞춰 올해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8종의 신차를 출시한다.

렉서스 브랜드는 순수 전기차(BEV) SUV 모델 RZ, 렉서스 두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인 완전 변형 RX 등 2종의 전동화 모델을 도입한다.

토요타 브랜드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하이브리드(HEV) 세단 크라운 크로스오버, 대형 럭셔리 하이브리드(HEV) 미니밴 알파드, 준대형 하이브리드(HEV) SUV 하이랜더, 5세대 모델로 완전 변형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프리우스 및 토요타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BEV) bZ4X 등 6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한다.

지난 2006년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렉서스 브랜드는 렉서스다운 전동화를 통해 ‘넥스트 챕터(NEXT CHAPTER)’로 도약할 방침이다. ‘사람을 위한 전동화’ 즉,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전동화 모델 도입과 함께

진심 어린 환대와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진정성이 담긴 럭셔리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요타 브랜드는 다양한 전동화 차량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먼저 가치를 보는 당신’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했다. 토요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고객들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전동화 차량의 도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의 안전, 안심, 신뢰를 위해 고객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콜센터와 리셉션 키오스크 등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 ‘인재육성’을 두 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국의 렉서스·토요타 딜러와 함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한다. 또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히 이행해 좋은 기업시민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코야마 마사무 사장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토요타의 멀티 패스웨이 전동화 전략 아래, 한국토요타자동차 역시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매력적인 전동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전국의 딜러사와 힘을 합쳐,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8종의 신차로 한국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진은 올해 출시할 신차의 첫 번째 주자인 RAV4 PHEV 모델. <토요타 코리아 제공>

한편 한국토요타는 최근 올해 출시할 신차의 첫 번째 주자인 RAV4 PHEV를 출시했다. RAV4 PHEV는 2.5 l 4기통 엔진과 전·후륜 모터 조합으로 최대출력 306마력의 동력성을 갖추고, 복합 주행모드 기준 15.6km/l의 연비를 자랑한다.

또 18.1kWh의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복합 주행모드 기준 최대 63km까지 전기차 주행이 가능하다. RAV4 PHEV는 한국에 출시된 토요타 모델 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토요타 커넥트’가 최초로 적용됐다.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은 5570만원으로, 토요타 코리아는 이번 런칭을 기념해 전국 토요타 딜러 전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된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전 모델 시승회를 개최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더 뉴 아반떼’ 더 날렵하고 강렬해졌다

현대차, 부분 변경모델 공개

현대차는 27일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 ‘더 뉴 아반떼’ <사진>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아반떼는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의 강렬한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 모델에 녹아져있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그래픽 요소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낮고 와이드한 비례감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보다 예리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디자인돼 전체적인 인상을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센터 크롬가니시를 기준으로 상하로 깔끔하게 정돈함으로써 차량을 한껏 넓어 보이게 했다.

측면부는 삼각형 모양의 패턴이 강조된 델타커버와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후면부의 리어 범퍼는 투톤 그래픽과 함께 견고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이 적용돼 또렷해진 인상을 구축했다.

현대차는 한층 강인한 인상으로 거듭난 아반떼의



디자인에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혀 대표 준중형 세단 모델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반떼는 고객의 눈높이를 적극 고려해 기존 모델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강렬한 인상을 더욱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양한 고객 연령층에게 두루 사랑받는 준중형 세단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입지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아반떼는 우수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21 북미 올해의 차’에 오른데 이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우수한 충돌 안전 및 예방 성능을 갖춘 차에 부여되는 톱 세이프티 픽(Top Safety Pick)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 TCR 월드투어’

금호타이어, WSC그룹과 레이싱 대회 타이틀 스폰서 계약

금호타이어는 최근 WSC그룹과 ‘금호 TCR 월드 투어’(KTWT, KUMHO TCR World Tour)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스폰서 체결식은 금호타이어 이강승 유럽본부장 전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WSC그룹 마르첼로 로티(Marcello Lotti) 회장, 눈지아 코르비노(Nunzia Corvino) 최고 운영 책임자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 TCR 월드 투어는 유럽 포르투갈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호주, 마카오까지 4개 대륙, 총 7개국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벨기에 스파(Spa) 서킷은 F1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가운데 가장 긴 서킷으로 초고속 서킷임에도 적절한 코너들이 잘 조합돼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레이스 경쟁이 예상된다.

또 호주를 대표하는 배서스트(bathurst) 서킷은 산악 지형 위에 만들어진 코스이기 때문에 경기 중반부에는 호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레이스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금호 TCR 월드 투어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고속 주행 중에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인 ‘엑스타(ECSTA) S700’ 과 빗길에서도 높은 주



스위스 루가노에서 윤장혁 상무와 마르첼로 로티 회장이 TCR World Tour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W701’을 장착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TCR 유럽 주요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TCR 남미, TCR 중동 2개 지역 대회와 TCR 호주, TCR 브라질, TCR 핀란드 3개 국가 대회를 추가해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상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모터 스포츠 대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美 신차보다 싼 테슬라 국내 보조금 100% 받나

‘모델3’ 5999만원...가격 인하 땀 100% 수령 가능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 가격이 최근 공격적 가격 인하정책에 힘입어 미국 내 평균 신차가격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전기차 가격 책정의 기준점이 되는 테슬라의 가격이 일부 계속 하락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은 물론 현대차·기아의 북미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로이터와 전기자동차매체 테슬라리더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모델3 RWD(후륜구동) 모델의 미국 내 가격은 4만2990달러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주어지는 세액공제액(7500달러)을 포함하면 가격이 3만5550달러까지 낮아진다.

이는 같은 급의 내연기관차 모델인 토요타의 캠리와 비슷하거나 싼 가격이다.

문제는 모델3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미국 평균 신차가격보다 싸졌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평가 매체 KelleyBlueBook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평균 신차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4만9388달러를 기록했는데 현재 모델3 가격은 출시 비용을 고려해도 이 가격보다 5000달러 이상 저렴해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델3를 역대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늘자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가격을 모델별로 최대 20%까지 낮췄다.

지난달 테슬라의 가격 인하 후 차량 주문은 1월 생산량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테슬라의 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이나 타 완성차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은 올해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 57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는 50%를 지원한다.

현재 모델3 RWD모델의 국내 가격은 5999만원으로, 보조금 50%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이어져 57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 100% 수령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내달부터 아반떼급 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사·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지난날 12월 발표할 때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 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든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사·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 등은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든 전망이다. /연합뉴스